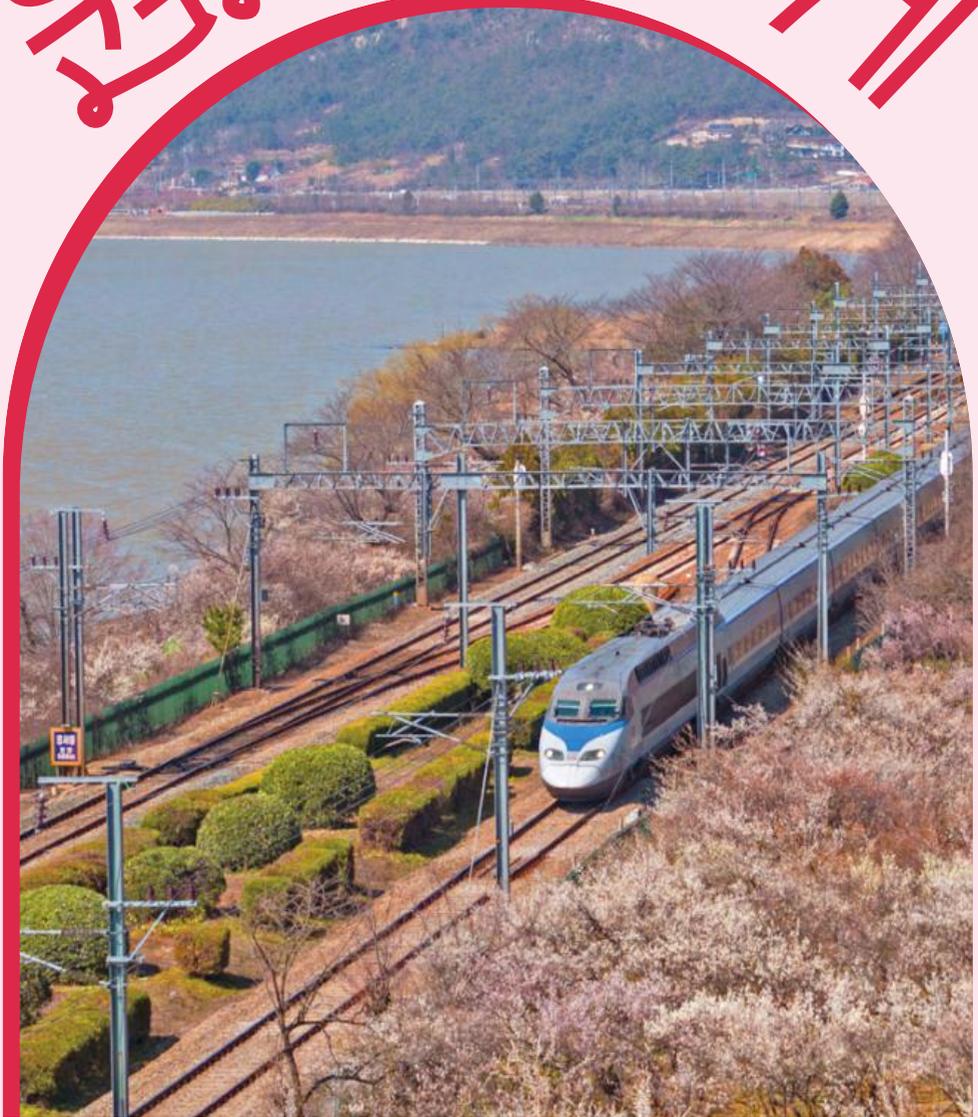


원리路 가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원리路(로) 가가게]





순이상회



농산물

두꺼비식육점

소고기 전문 / 동결장 / 현우 / 현돈 전문 382-5063

떡

형제반점



가야점



센터장 발간사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기회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김남홍

양산시 원동면은 서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오봉산, 토곡산, 천태산, 배내골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농촌으로써 우리 시의 보물입니다.

우리 농촌이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집스러운 만큼 정직한 먹거리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의 공간을 탈피해 지친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이자 값진 땀방울을 흘리게 하는 체험의 공간인 동시에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농촌은 활기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산시의 모든 이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만의 음식, 옛날이야기, 빼어난 자연 경관 등을 지역 특산물과 결합하여 알린다면 농촌은 색다른 문화 체험과 먹거리를 접하는 문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양산시 농촌을 찾게 될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번 <원리로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양산시 원동면(원리·함포)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가게 소개와 함께 원동면의 즐길거리를 함께 수록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원리로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원동 매화 축제가 3년간 개최되지 못해 침체된 원동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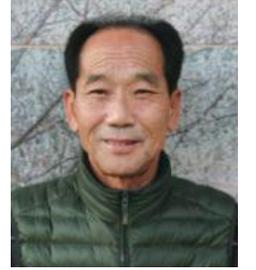
이 책자에는 기존에 잘 알려진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숨겨진 명소, 그리고 인근 맛집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고자 했으며, 책자 발간을 통해 원동면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작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의 보물창고인 원동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원리로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떠나는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초대합니다.



원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장 인사말

북적이는 관광객으로 활기를 되찾기 위한 원대한 준비



원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장
김성진

양산시 원동면은 과거 여행객이 찾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차가 개통되면서 원동역을 통해 경남 일대에 유명한 오일장이 성황리에 운영되었고 배내골로 가려는 관광객들로 인해 거리마다 사람으로 북적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산간 오지라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던 원동면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명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의 발달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원동역을 거치지 않고도 배내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됐으며 원동역과 매화 같은 지역 자원을 수동적으로 활용하면서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해서 실행하는 것도 그 이유가 가장 큼니다.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여러 사업은 주민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을은 점점 활기가 생겨 났습니다. <원리로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출간은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기대가 큼니다. 관광객이 찾게 하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 못지않게 관광객 편의 시설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 향토 음식을 맛보고 지친 다리를 쉬게 하는 상업 시설은 관광 편의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광 자원과 관광 편의 시설은 이처럼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찾는 편의 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많을 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원리로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 소개와 더불어 지역 상권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번 책자가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원동면은 매화 축제와 더불어 여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리마다 북적이는 관광객으로 활기찬 지역이 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상가의 대표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ntents

01 오시면 반기리

화보집 2
발간사 8

매화담 카페 소개 14
매화담 사람들 16

매화담을 꾸리는 사람들
매화담에 모인 사람들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음료

02 맛보면 또오리

푸근한 집밥 24

원동손두부식당
영주마차
원동회집
소림어탕국수
형제반점
금강식당
갈대지붕
행복식당
수월산방
머무르는 풍경

신촌참숯갈비미나리삼겹살
강변회집
길촌토종집
초당김밥
토곡식당
향촌
원동동창회가든
시골밥상
강변식육식당
늘봄농원

휴: 식 休息 44

밭그랑
오거리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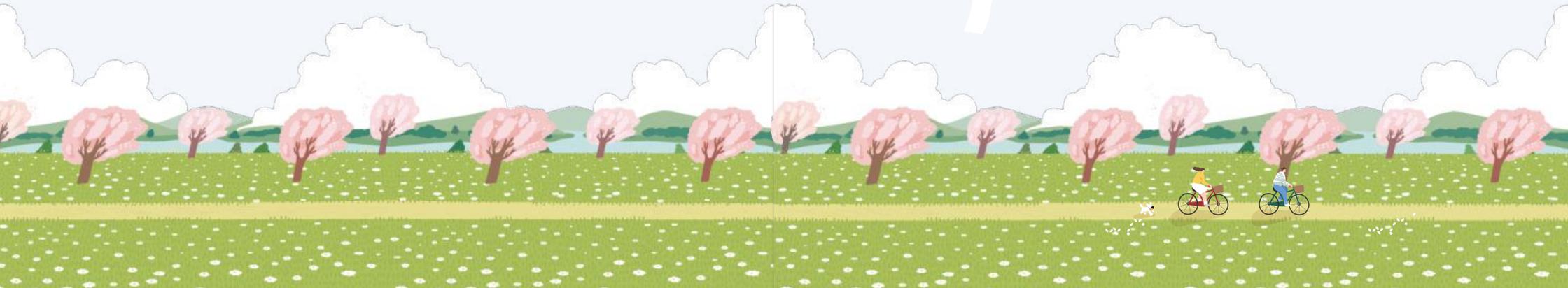
커피 푸른창
원동떡방앗간

03 가시면 좋으리

즐길거리 50

당곡생태학습관
오봉산과 임경대
가야진사공원
신흥사
순매원
원동 매화축제
딸기&매실 따기 체험
미나리축제
자전거 도로
원동자연휴양림

화보집 58





오시면 반기리



매화담 카페 소개 14

매화담 사람들 16

매화담을 꾸리는 사람들

매화담에 모인 사람들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음료

마을 공동 운영 카페 대화담 소개

사랑방처럼 특별한 '대화담 카페' 소개

원동역에서 내려 한적한 원동마을을 걷다 보면 원동면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대화담 카페를 만난다. 여느 카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게에 들어서면 대화담만의 특별함이 드러난다. 바로 특별한 다섯 명의 바리스타 때문이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만든 음료라 반신반의 하지만, 맛을 본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란다. 라떼부터 요거트까지 다양한 메뉴와 착한 가격은 덤이라는 대화담에서 상큼한 매실 에이드 한 잔 맛보는 것은 어떨까?



원동을 이어주는 사랑방

“어서 온나!”, “오늘은 형님이 근무하는 갑네!” 정겨운 인사가 낯설지 않은 대화담은 언제나 정이 넘친다. 집에서 가져온 과일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바리스타와 손님의 모습은 오직 대화담에서만 볼 수 있다. 2017년 원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이후 대화담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며 가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꽃이 핀다. 다섯 명의 바리스타가 내리는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퍼지는 편안한 분위기는 주민과 주민을 끈끈하게 이어준다.

관광객이 쉬어가는 작은 쉼터

대화담은 착한 가격과 놀라운 맛으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원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 만점이다. 다섯 바리스타들은 모두 정식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전문 바리스타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준다. 특히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매실청부터 모과, 생강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과실청이 인기가 많다.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과실청은 건강과 함께 상큼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2
영업시간 09:00~18:00 (동절기 마감 17:00, 연중무휴)
대표메뉴 아메리카노, 매실 에이드, 매실 요거트

양손 가득 챙길 수 있는 매실청과 매실장아찌

카페에 방문했다면 원동면의 기념품을 잔뜩 살 수 있다. 바리스타들이 직접 담가 더욱 믿을 수 있는 매실청과 매실장아찌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고 음료로도 즐길 수 있는 매실청과 밥도둑 매실장아찌로 집에서 원동 여행을 추억할 수 있다.

* 매실상품 주문 및 예약은 전화를 통해서 받습니다.
010-4582-5192



친절한 바리스타와 포근한 분위기의 대화담에서 따뜻한 여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일상에서 지친 마음이 어느새 치유될지도 모른다.

매화담을 꾸리는 사람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포근한 매화담 카페.
카페는 장울령 사무장과 다섯 명의 바리스타가 열심히 운영 중이다.
매화담을 지키는 여섯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매화담 카페의 리더
장울령 사무장

원동과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장울령 사무장. 원동마을의 사무장이자 매화담 카페의 리더로서 카페를 이끌어 오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첫 임기에 돌입한 그녀는 앞으로의 매화담을 새롭게 꿈꾸고 있다. “원동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댁이 바로 옆 당곡마을이고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로 10년간 원동면을 담당하면서 자주 찾았기 때문이지요. 매화담 카페에 근무하기 전부터 바리스타분들과도 이미 친했어요. 사무장으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카페 단골손님이던 장 사무장은 카페를 책임지는 사무장이 되었다. “매화담은 원동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매화담에서 펼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상점 등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입니다. 매화담을 찾아 주시는 관광객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정으로 내린 커피 한 잔
최선자, 이수선 바리스타

분주하게 커피를 내리는 최선자 바리스타와 계산을 이어가는 이수선 바리스타. 주문과 동시에 각자 맡은 역할을 빠르게 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프로 바리스타임을 직감할 수 있다. ‘힘들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지자 최선자 바리스타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시간이 많아요. 텔레비전 보는 것 외에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지요. 하지만, 매화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자원 봉사를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벌써 봉사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선 바리스타도 같은 이야기를 이어 했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만 마시던 우리가 원두에 대해 배우고 커피 내리는 방법을 익히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매화담 카페에 많은 손님이 오셔서 카페가 더욱 생기 넘쳤으면 합니다.”



가족도 좋아하는 매화담 카페
홍기수, 김필순 바리스타

매화담의 손님 중에는 바리스타의 가족도 있다. 카페에서 봉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녀들이 더 좋아한다는 홍기수, 김필순 바리스타. 그녀들이 말하는 매화담은 카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녀들이 집에 내려오면 꼭 매화담 카페를 들러서 음료를 마시고 갑니다. 음료가 맛있다는 칭찬과 함께 카페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응원해 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매화담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욱 뿌듯합니다.”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매화담 카페의 장점을 설명했다. “가족들도 많이 찾아주는 카페라서 자녀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료를 만들어요. 직접 담긴 수제 과일청은 바리스타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들어 만듭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는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출근의 설렘이 가시질 않은 신입사원
한애영 바리스타

어렸을 때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다는 한애영 바리스타. 매화담에서 근무하는 지금이 꿈만 같다고 말한다.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인스턴트 크림 가루가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많이도 먹었어요. 커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영상 강의도 찾아보고 학원에 다니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이후 홍기수 바리스타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봉사자를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급여가 없는 봉사 활동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의 설렘이 아직 가슴에 가득하다는 한애영 바리스타는 매화담에서 봉사가 행복하다. “제가 내린 커피를 맛본 사람들이 향이 살아 있어 맛있다고 말씀해주실 때 가장 기쁩니다. 최선을 다해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매화담 카페에는 손님을 반기는 여섯 명의 직원이 오늘도 카페를 지키고 있다. 카페의 문이 열리면 언제나 웃음으로 사람을 반겨주는 매화담에서 음료를 시켜보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바리스타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정성 가득 담긴 한 잔이 당신을 반겨 줄 것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원동의 미래

매화담에 모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매화담 카페.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마을이 있다. 삶을 이어온 공간이자 이어갈 공간인 원동에서 주민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 것일까?

김성진

원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장 / 원동마을 이장



원동은 봄철 매화 축제가 끝나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여름엔 유채꽃, 가을엔 코스모스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 중입니다. 늘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원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동마을 전 부녀회장

김윤악



마을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은 점점 고립되고 사라지고 말지요. 원동마을이 없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원동의 자연을 매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원

원동면 전 부녀회장 / 원동마을 전 사무장



원동은 오랜 전통을 가진 노포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고소한 참기름, 상큼한 매실청 등 구경거리가 많아요. 한적한 자연과 함께 원동 노포를 찾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커피 푸른창 대표

김부순



원동 매화 축제로 마을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원리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농촌 마을의 자활을 위해 행정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원동마을 부녀회장

정명주



매화 외에도 관광객이 원동을 방문할 수 있게 다양한 관광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장율령

원동마을 사무장



원동은 타지역에 비해 개성이 뚜렷한 특산물과 자연환경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시켜 낙동강 낚시 체험, 농촌에서 1주일 살아보기, 매실 따기 체험을 통해 관광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매화담 카페 바리스타

홍기수



매화담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매우 즐겁습니다. 손님들도 카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요. 많은 사람이 원동과 매화담 카페에 방문해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수선

매화담 카페 바리스타



차 한 잔에 곁들일 즐거운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매화담 카페에 방문하여 여유 가득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음료

자고로 카페는 음료가 맛있어야 하는 법. 매화담 카페를 책임지는 여섯 사람이 강력 추천하는 메뉴를 소개한다. 판매량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인기 메뉴를 만나보자.



최선자
바리스타
추천 메뉴

바닐라 라떼 활기찬 하루를 위한 당 충전

부드러운 바닐라의 향기가 매력적인 바닐라 라떼는 달달한 커피를 찾는 분들에게 인기입니다. 에스프레소와 바닐라 시럽의 만남은 카페인과 당을 동시에 충전해 주지요. 우유가 듬뿍 들어가기 때문에 빈속에도 부담 없어요. 우리 영감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웃음)

이수선
바리스타
추천 메뉴

매실 에이드와 매실 요거트 상큼한 매실의 매력 속으로

매실청이 듬뿍 담긴 매화담의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합니다. 톡톡 튀는 탄산으로 청량감을 배가시킨 매실 에이드와 진한 요거트의 풍미를 담은 매실 요거트입니다. 매실청은 바리스타들이 직접 수확한 매실을 청으로 만들어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지요. 마을의 특산품이자 장에 좋은 건강한 음료라서 매화담의 베스트 셀러입니다.



홍기수
바리스타
추천 메뉴

아메리카노 커피 본연의 향을 만나다

고소하고 은은한 커피의 향기를 즐기고 싶다면 아메리카노를 추천합니다. 커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바리스타들이 직접 시음을 거치면서 맛과 향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김필순
바리스타
추천 메뉴

생강차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 음료

커피도 좋지만, 가끔은 생강차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생강청으로 우려낸 생강차는 맵지 않아서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요. 바리스타들이 직접 담근 생강청을 사용해서 더욱 맛있습디다.



한애영
바리스타
추천 메뉴

레몬차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의 변신

매화담 카페의 레몬차는 특별합니다. 레몬청에는 모과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레몬의 상큼함과 모과의 싱그러운 향이 무료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줍니다. 레몬차 한 잔으로 기분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율령
사무장
추천 메뉴

딸기 요거트, 딸기 라떼 사랑에 빠질 것 같은 핑크 빛

원동면에서 재배한 딸기를 듬뿍 넣은 딸기 음료는 봄철 인기 메뉴입니다. 상큼한 요거트와 부드러운 우유는 딸기와 잘 어울리는 재료이지요. 특히 카페를 찾아주는 어린이 손님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입니다.



맛보면 또오리



푸근한 집밥 24

- 원동손두부식당
- 영주마차
- 원동횃집
- 소림어탕국수
- 형제반점
- 금강식당
- 갈대지붕
- 행복식당
- 수월산방
- 머무르는풍경
- 신촌참숯갈비마나리삼겹살
- 강변횃집
- 길촌토종집
- 초당김밥
- 토곡식당
- 원동동창회가든
- 향촌
- 시골밥상
- 강변식육식당
- 늘봄농원

휴: 식 休息 44

- 밭그랑
- 오거리휴게소
- 커피 푸른창
- 원동떡방앗간

01

매일 반찬이 바뀌는 가정식 백반을 맛보고 싶다면 원동 손두부 식당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원동손두부 식당의 정명주 대표. 그녀의 음식은 집밥을 떠올리게 한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며 식사를 준비하는 정 대표는 맛있게 드시는 손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한정식 메뉴 중에서 가장 대표적 메뉴인 손두부찌개는 짭조름한 감칠맛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진다. 원동면에서 재배되는 채소들로 만들어진 온갖 밀반찬들도 일품이다. 오늘의 메뉴가 궁금하다면 사장님 번호로 직접 문의한 뒤 방문해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24
 영업시간 11:00~14:00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010-5637-0702
 대표메뉴 손두부, 손두부찌개, 청국장찌개

02

재료부터 건강을 생각한 영주마차



밀가루로 만든 흔한 해물파전이 아니다. 영주마차의 인기 메뉴 해물파전은 배순자 대표가 손수 만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한다. 바로 도토리과 미나리 가루. 특히 도토리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지만, 배 대표는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는다. 감칠맛이 일품인 양푼이국수와 강원도초당순두부도 많이 찾는다. 모두 천연 재료의 건강한 맛을 그대로 전하는 메뉴로 원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휴무일 없이 늦은 밤까지 식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면 된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0
 영업시간 10:00~23:00 (연중무휴)
 문의 010-3351-7322
 대표메뉴 양푼이국수, 해물파전, 강원도초당순두부



03

민물고기의 풍부한 감칠맛을 느끼고 싶다면

원동횃집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언제나 바쁜 원동횃집은 신선한 회와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신선한 향어를 손질한 향어회는 반짝이는 윤기와 선명한 선홍빛이 먹음직스럽다. 두툼한 메기의 살과 깔끔하고 진한 국물이 매력적인 메기 매운탕과 고소한 장어구이는 별미다. 특히, 장어는 주문과 동시에 초벌구이를 진행해 탱글탱글한 장어 특유의 식감이 살아 있다. 다양한 민물고기 요리가 궁금하다면 원동횃집을 방문해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43-1
 영업시간 08:00~20:00 (연중무휴)
 문의 010-4812-9721
 대표메뉴 장어구이, 향어회, 메기 매운탕



04

색다른 보양식을 찾고 있다면

소림어탕국수



민물고기와 채소를 넣고 끓인 어탕에 국수를 삶아 먹는 어탕국수. 생소한 이름과 다르게 그릇에 담긴 어탕국수를 보면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추어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림어탕국수의 어탕국수는 특별한 보양식이다. 민물 잡어를 뼈째 갈아 넣은 진한 국물은 지중범 대표의 노하우로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다. 국물 속에 숨겨진 국수와 수제비는 쫄득한 식감으로 계속해서 입맛을 당긴다. 기력 회복에 좋은 어탕국수를 맛보고 싶다면 소림어탕국수에 방문해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51-1
 영업시간 09:00~16:00 (연중무휴)
 문의 055-383-3750
 대표메뉴 어탕국수, 추어탕, 청국장



05 차이나타운의 맛을 옮겨오다
형제반점



차이나타운의 텃새를 실력으로 이겨내고 40년간 중식 요리사로 형제반점을 운영했던 김재수 대표. 그가 남긴 레시피는 아내인 백숙이 대표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수타 반죽으로 뽑아낸 쫄깃한 면과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요리는 정통 중식의 조리법을 고수하면서 오랜 맛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어떤 메뉴를 시켜도 푸짐한 양과 깊은 감칠맛에 놀라게 된다. 다른 메뉴의 맛이 저절로 궁금해지는 형제반점에서 중식의 매력에 빠져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53
영업시간 11:00~19:00 (매주 목요일 휴무)
문의 055-372-5188
대표메뉴 짜장면, 짬뽕, 볶음밥

06 메뉴판에는 없는 비밀 메뉴가 궁금하다면
금강식당



'음식은 정성스럽게!' 금강식당을 운영 중인 강정자 대표의 좌우명으로 음식을 향한 그녀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고기 메뉴가 주를 이루는 금강식당은 특제 양념 소스에 신선한 오리불고기가 만난 오리불고기가 대표 메뉴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양념이 만들어낸 감칠맛은 여행의 기쁨을 더한다. 메뉴판에는 비밀이 있는데, 단골 손님에게만 특별히 주문받는 된장찌개를 비롯해 숨겨진 음식이 많다. 맛있는 고기와 궁금증을 자아내는 비밀 메뉴를 맛보고 싶다면 금강식당을 방문해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58
영업시간 08:00~18:00 (연중무휴)
문의 010-4680-5191
대표메뉴 생오리불고기, 생삼겹살, 추어탕

07

낙동강을 바라보며 먹는 삼겹살
갈대지붕



절경 속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갈대지붕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원동초등학교에서 원동마을 위 쪽으로 난 원동로를 따라 7분 정도 걸다 보면 갈대지붕을 만난다. 미나리삼겹살 전문점인 갈대지붕은 식사하면서 낙동강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전망만큼 음식 맛도 일품이다. 잘 구워진 삼겹살에 미나리를 얹어 먹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향긋한 미나리의 향기에 취하게 된다. 윤주리 대표가 직접 고른 국내산 생삼겹살과 원동 미나리는 재료가 신선한 만큼 풍미가 가득하다. 붉게 물든 낙동강과 반짝이는 윤슬을 배경으로 맛보는 한 끼는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66
 영업시간 12:30~20:00 (매년 7월~9월 휴무)
 문의 010-3586-5278
 대표메뉴 미나리삼겹살

08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행복식당



국수 전문점 행복식당은 착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손님에게 행복을 전하는 가게다. 시원한 멸치 육수에 애호박과 당근 등 색색의 고명이 얹어진 국수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임옥진 대표가 손수 만든 김치와 장아찌, 밀반찬과 함께 먹으면 감칠맛은 두 배가 된다. 국수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메뉴가 있다. 바로 미나리삼겹살이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에 향긋한 미나리를 씹으며 즐기고 이후 남은 고기와 미나리를 넣은 볶음밥을 먹으면 행복은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76
 영업시간 11:00~18:00 (연중무휴)
 문의 010-4521-5347
 대표메뉴 국수, 미나리삼겹살, 미나리전

09

숨길 수 없는 가마솥 요리의 존재감

수월산방



가마솥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난다. 수월산방은 가마솥을 활용해 만드는 음식으로 숨길 수 없는 맛과 함께 추억까지 불러온다. 특히 추천하는 음식은 가마솥에서 푹 고아 만든 수육을 맛볼 수 있는 수육정식이다. 윤기가 돌아 더욱 먹음직스러운 수육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이희자 대표가 직접 담가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도 빼놓을 수 없다. 미나리 철에는 미나리삼겹살을 주로 판매하니 명심하고 방문하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82
 영업시간 10:0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10-2087-5333
 대표메뉴 미나리삼겹살, 오리불고기, 수육정식

10

향긋한 미나리와 삼겹살의 만남

머무르는 풍경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가게 머무르는 풍경은 향긋한 미나리 철이면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표 메뉴인 미나리삼겹살이 가장 유명해서 인기가 많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수제비와 팔빙수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쫄쫄한 반죽의 수제비와 원동에서 재배된 산딸기, 딸기, 수박 등 제철 과일을 곁들인 팔빙수는 인기 만점이다. 식사에서 후식까지 가게를 떠날 수 없게 하는 머무르는 풍경에서 풍부한 향을 가진 미나리삼겹살을 먹고 쫄쫄한 수제비와 달콤한 팔빙수도 즐겨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83
 영업시간 10:00~20:00 (연중무휴)
 문의 010-2828-4364
 대표메뉴 미나리삼겹살, 수제비, 팔빙수

신촌참숯갈비미나리삼겹살



양념 고기는 구워지는 향만으로도 입가에 침이 고인다. 신촌참숯갈비미나리삼겹살의 대표 메뉴인 양념 갈비는 양념이 육질 사이사이에 배어들어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고기를 든든히 먹고 나면 목은지 찌개를 비롯해 식사 메뉴가 기다린다. 깔끔하게 입맛을 사로잡는 물·비빔냉면으로 식사를 마무리했다면 이제 자리를 옮겨보자. 김이건 대표는 식당 바로 옆에 카페도 같이 운영 중이다. 식사 후 커피를 찾는 사람이라면 편안한 후식을 즐길 수 있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9
 영업시간 11:00~22:00
 (미나리철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55-382-3717
 대표메뉴 양념갈비, 미나리삼겹살, 소고기등심

강변횃집



낙동강에서 잡은 싱싱한 민물고기를 맛보고 싶다면 강변횃집을 방문해보자. 윤옥이, 이경호 대표가 운영 중인 강변횃집은 이 대표가 직접 잡아 온 물고기를 재료로 요리해 신선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0년 경력의 요리사 윤 대표가 끓인 매운탕은 배초향과 산초가 들어가 향긋하고 칼칼한 맛이 향어회와 찰떡궁합이다. 고소한 향어회 한 점과 매운탕 한 술이면 낙동강을 모두 맛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상의 콤비 두 대표의 손맛이 궁금하다면 강변횃집을 둘러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544
 영업시간 11:00~20:00 (연중무휴)
 문의 055-382-5525
 대표메뉴 향어회, 메기 매운탕, 동자개 매운탕

길촌도종집



길촌도종집의 대표 메뉴는 두루치기다. 입맛을 자극하는 빨간 양념과 육즙이 살아 있는 고기 그리고 위에 얹어진 계란프라이가 매력적인 두루치기는 입이 얼얼해 질만큼 매콤하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고기 위에 얹어진 계란프라이가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두루치기 외에도 다양한 계절 메뉴를 내놓을 수 없다. 더위로 잃은 입맛을 찾아줄 5가지 나물 비빔밥과 동장군도 녹일 따뜻한 동태탕과 떡국은 별미이니 꼭 먹어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천대로 1541
 영업시간 09:00~20:00 (연중무휴)
 문의 055-382-6443
 대표메뉴 두루치기정식(2인 이상),
 미나리생삼겹살, 촌된장찌개



초당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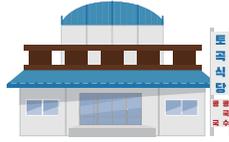


소풍의 완성은 김밥이다. 한입에 쏙 집어 먹을 수 있고 특별한 반찬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초당김밥을 운영 중인 최윤경 대표는 원동에 처음으로 김밥 가게를 창업했다. 다양한 김밥 종류 중에서 원동의 특산물인 매실이 들어간 매실 김밥이 눈에 띈다. 김밥의 단짠 분식도 빠질 수 없다. 따뜻한 우동과 바삭한 돈가스,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를 김밥과 같이 즐길 수 있다. 상큼한 매실 김밥을 포장해서 매화를 보며 먹는 것은 어떨까?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27
 영업시간 08:00~20:00 (토·넷째 주 화요일 휴무)
 문의 055-383-2320
 대표메뉴 초당매실김밥, 초당돈가스, 초당우동



15 시원 깔끔한 추어탕을 찾는다면
토곡식당



기본에 충실한 맛이 사랑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박두원 대표가 운영 중인 토곡식당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식당이다. 특별한 재료가 내는 독특한 맛은 없지만 추어탕 본연의 진한 국물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 손으로 직접 뼈를 골라내고 미꾸라지 살만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박 대표. 수고스럽지만 늘 같은 레시피를 고수하는 그녀는 오늘도 그녀만의 기본을 지키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41
 영업시간 09:00~17:00 (연중무휴)
 문의 010-4573-5143
 대표메뉴 추어탕, 콩국수, 잔치국수

16 원동마을의 새로운 얼굴
원동 동창회가든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가게 이름부터 막역한 느낌을 전하는 원동동창회가든은 원동마을 토박이 강혜원 대표가 운영 중이다. 원동을 대표하는 미나리삼겹살과 함께 진한 국물이 일품인 소머리국밥과 소머리수육을 맛볼 수 있다. 깔끔하고 담백한 소머리국밥 한 술갈래 깍두기와 양파무침을 함께 입에 넣는 순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오늘도 강혜원 대표는 애향심을 가지고 손수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고향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한 끼를 맛보고 싶다면 원동동창회가든을 찾아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44
 영업시간 11:00~19:00 (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010-5109-9280
 대표메뉴 소머리국밥, 소머리수육, 미나리삼겹살

17 약이 되는 음식
향촌



한의학에서 약선은 약재를 넣어 조리한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먹는 먹거리를 뜻한다. 향촌은 약선 요리의 진수를 보여 준다. 동의보감에서 위장염과 기력이 약할 때 먹으면 좋다고 한 청동오리를 백숙과 불고기로 요리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 특히 백숙은 15가지 종류의 한약재를 아낌없이 사용해 진한 육수와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 있어 단골손님 사이에서 약으로 불린다.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약선 요리를 맛보러 부모님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86
영업시간 10:30~19:30 (연중무휴)
문의 055-382-2392
대표메뉴 한방청동오리 백숙, 청동오리 불고기, 한우소머리곰탕



18 능이버섯의 향기로움에 빠지다
시골밥상



같은 음식도 요리사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이다. 시골밥상을 운영 중인 하경애 대표는 흔한 요리인 백숙을 자신만의 레시피로 완성했다. 바로 능이버섯과 백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능이한방백숙이 그 주인공이다. 엄나무와 옷 등 다양한 한약재와 능이버섯을 넣은 능이한방백숙은 그윽한 버섯의 향과 쫄깃한 육질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백숙 외에도 체력 보충의 대표 메뉴 장어탕도 인기가. 세계질내내 즐길 수 있는 원기 충전 메뉴로 활력을 되찾아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685
영업시간 10:00~20:00 (연중무휴)
문의 010-4007-2562
대표메뉴 능이한방백숙, 두루치기정식, 장어탕



강변식육식당



함포마을회관 인근을 걷다보면 유유히 흐르는 함포천 옆에 자리 잡은 강변식육식당을 만난다. 한식 경력 40년에 빛나는 송희숙 대표가 운영 중인 강변식육식당은 밀반찬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직접 기른 식재료로 만든 밀반찬은 철마다 바뀌고 조리에서 사용된 소스와 장류는 그녀의 노하우가 담겨 깊은 맛을 낸다. 특히 갈비탕은 커다란 갈빗대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푸짐한 고기와 깊은 국물을 맛볼 수 있다. 든든한 한 끼를 맛보고 싶다면 강변식육식당을 찾아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712
 영업시간 11:00~21:00 (연중무휴)
 문의 055-382-9282
 대표메뉴 갈비탕, 갈비찜, 미나리삼겹살

늘봄농원



함포마을 끝자락에는 보양식 전문점 늘봄농원이 있다.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주점의 대표는 재료부터 정성을 다한다.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채소와 건강하게 키워낸 닭과 염소 등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빛깔부터 다르다. 특히 뽀얀 국물이 매력적인 닭백숙은 쫄깃한 육질과 진한 육수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각종 한약재와 천연 조미료로만 맛을 내는 늘봄농원의 보양식 한 그릇이면 어떤 보약도 부럽지 않다. 예약으로 운영되니 방문 전에는 꼭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말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817-36
 영업시간 예약 방문 추천
 문의 010-4631-0938
 대표메뉴 닭백숙, 삼겹살, 오리불고기

01 고택의 아름다움을 품은
발그랑



원동역에서 원동초등학교로 향하는 골목길에는 어수영, 한예지 대표가 운영 중인 발그랑이 있다. 오래된 일본식 목조 주택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카페는 따스한 빛깔의 조명과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준다. 발그랑에 방문하면 꼭 맛보아야 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꽃감 라떼와 썩 라떼이다. 과하지 않은 달콤함이 매력적인 꽃감 라떼는 부드러운 우유 속에 썰린 꽃감이 들어간 음료로 감칠맛이 일품이다. 봄의 향기를 담은 썩 라떼는 달콤한 크림과 썩의 진한 향기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 감성을 자극하는 발그랑에서 라떼에 치즈케이크로 아련한 추억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8
영업시간 평일 11:00~19:00, 주말 11:0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507-1472-9919
대표메뉴 꽃감 라떼, 썩 라떼, 바스크치즈케이크

02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의 쉼터
오거리휴게소



원동로를 오가는 여행자에게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가게가 있다. 바로 오거리휴게소이다. 원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가게는 이름처럼 다섯 갈래의 길목에서 손님을 반긴다. 백귀남 대표가 운영 중인 오거리휴게소는 국수가 대표 메뉴다. 비법 레시피를 통해 끓여낸 육수 위에 김, 단무지 등 색색의 고토크 올라간 국수는 허기진 여행객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 준다.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국수와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온국수 그리고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는 부추전과 도토리묵까지. 정성스러운 백 대표의 음식은 오늘도 손님을 기다린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07
영업시간 08:00~19:00 (연중무휴)
문의 010-3556-0886
대표메뉴 냉·온국수, 부추전, 도토리묵



03 편안하고 힐링하기 좋은 카페
커피 푸른창



눈부시게 푸른 지붕과 흰 외벽.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커피푸른창은 휴양지 같은 편안한 매력을 지녔다. 탁 트인 전망과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소품은 여유로운 가계 분위기를 더한다. 멋진 풍경을 보며 맛볼 메뉴들도 모두 훌륭하다. 무선탕 수제 대추차는 대추만 사용해 은은한 달콤함이 인상적이다. 파인애플 게맛살 샌드위치는 상큼한 파인애플과 게맛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깔끔하고 담백한 디저트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1길 11
영업시간 09:00~19:30 (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010-8648-9745
대표메뉴 무선탕 수제 대추차, 수제 요거트, 파인애플 게맛살 샌드위치



04 시루에서 익어가는 고소한 향기
원동떡방앗간



시루 사이의 하얀 수증기가 매일 피어오르는 이곳은 원동떡방앗간이다. 쫄 향기 가득한 쫄떡과 금방 뽑은 따끈한 가래떡 등 김 대표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떡들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색다른 떡을 개발 중이라는 김 대표. 원동의 특산물을 활용한 떡을 연구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떡 외에도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원동떡방앗간에 들러 맛있는 떡과 여행 기념품을 구매해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52-1
영업시간 07:00~17:00 (연중무휴)
문의 055-382-5122
대표메뉴 쫄떡, 떡국



가시면 좋으리



즐길거리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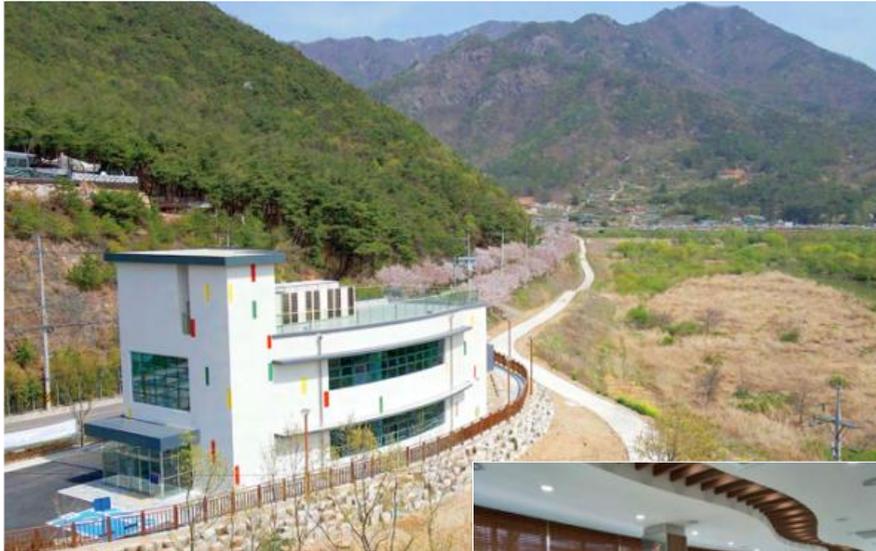
당곡생태학습관
오봉산과 임경대
가야진사공원
신흥사
순매원
원동 매화축제
딸기&매실 따기 체험
미나리축제
자전거 도로
원동자연휴양림

01

원동 습지와 만나다

당곡생태학습관

출처 당곡생태학습관 홈페이지



사라져가는 식물의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인 공간이 있다. 원동 습지의 생태계를 학습할 수 있는 당곡생태학습관이다. 이곳에는 생생한 체험을 위한 VR 체험존, 포토 키오스크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 전시실이 있다. 2023년에는 양산 생태습지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니 당곡생태학습관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배워보자.

홈페이지 www.yangsan.go.kr/ysdangok/
주소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44
문의 055-382-0953
이용시간 09:00~18:00 (입장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1, 설날
기타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관람료 무료



02

낙동강의 탁월한 풍광을 볼 수 있는

오봉산과 임경대

출처 양산시



고고히 흘러가는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다면 오봉산에 있는 임경대를 가보자.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은 임경대의 황홀경을 시로 남겼고,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그녀 역)은 오봉산 꼭대기에 있는 차태현(견우 역)을 향해 "견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여자인가 봐"라는 고백으로 명장면을 남겼다. 양산8경 중 하나인 오봉산 임경대에 간다면 당신도 역사 속 시인처럼, 영화 속 주인공 공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본 뒤의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85



03

용신과 함께

가야진사공원

출처 양산시



탁 트인 경치와 잘 정비된 길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사로잡는 공원이 있다. 용과 얽힌 옛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가야진사공원이다. 가야진사는 낙동강의 삼용신을 모시는 제당으로 삼국시대부터 국가 제례인 '가야진 용신제'를 지냈다. 공원에는 가야진사 전시관, 용의 언덕, 청소년 체험 교육장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신비로운 전설이 담긴 공원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겨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용당들길 43-62

04

나라를 지킨 승려들의 혼이 잠든

신흥사

출처 공공누리



양산 통도사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사찰인 신흥사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맞선 승려들의 거점이었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단풍이 신흥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사찰은 목조 법당인 대광전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대광전 건물의 내·외부는 고려 후기로 추정되는 불상·신장상·꽃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282-111
운영시간 일출~일몰

05

겨울의 끝자락에 원동마을로 오세요

순매원



옛 선비들은 매화를 군자라 불렀다.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내기 때문이다. 순매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화 명소 중 한 곳이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가 농원을 붉게 물들이는 절경을 포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카메라들이 모인다. 전망대에서는 매화의 아름다운 절경과 기차길을 동시에 담을 수 있어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꽃이 지고 나면 탐스럽게 달린 매실이 초여름의 청량함을 더한다. 순매원을 방문하여 농원을 구경하고 매실도 구매해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421 원동순매실농원

06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는

원동 매화축제



매화가 피는 봄이면 순매원을 중심으로 매화 축제가 열린다.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맛있는 주전부리를 먹으며 오가는 기차를 구경하다 보면 봄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원동주말장터에서는 원동면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곳곳에서 버스킹, 마술쇼 등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을 한껏 흡수하고 싶다면, 매화를 구경하러 축제에 참여해 보자.

주소 양산시 원동면 원리 857-18



07

원동마을 특산품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

딸기&매실 따기 체험



맛있는 과실을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우리를 기다린다. 원동의 딸기와 매실은 맛과 모양이 좋기로 유명하다. 원동 딸기는 낙동강의 기운을 받아 걸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다. 원동 매실은 100년 전통의 매실 재배 노하우가 담겨 과육이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딸기 수확 체험은 수확을 시작하는 1월부터 5월 초까지 가능하며, 매실 수확 체험은 6월부터 7월 초까지 가능하다. 재미있는 과일 수확 체험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



딸기체험 매년 1월~5월 초 진행

매실체험 매년 6월~7월 진행



08

봄바람 살랑 불어오거든 미나리 먹으러 오세요

미나리축제



‘처가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는 속담이 있다. 처가를 잘 가지 않았던 조상님도 봄철 미나리는 못 참았나 보다. 원동의 맑은 물을 먹고 자란 봄 미나리는 특히 줄기가 연해 먹기 좋고 독특한 풍미를 가져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 살짝 데친 미나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미나리강회’로 먹어도 좋지만, 구운 삼겹살에 미나리를 싸서 먹으면 환상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 매년 3월이면, 원동마을은 싱싱한 미나리의 맛을 잊지 못 한 사람으로 북적인다. 봄바람 살랑 불어오면, 원동 미나리를 먹으러 갈 시간이다.

일시 매년 3월 진행



09

낙동강을 달리다

자전거 도로

출처 한국관광공사



매화원동마을 자전거길은 자전거 애호가라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고즈넉한 원동마을을 가로지르는 매화원동마을 자전거길은 낙동강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기차길을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출발점인 원동역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전거길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 코스안내 황산공원 ➡ 물문화전시관 ➡ 황산강배랑길 ➡ 가야진사
- 소요시간 편도 50분 (시속 15km 기준)
- 주행거리 12.2km
- 구간난이도 경사도 (완만), 난이도 (하)

라이딩 TIP

물금역 (경부선) 광장과 원동역 앞에서 공공자전거 대여 가능
황산문화체육공원, 원동역, 가야진사공원 내 화장실 이용가능



10

원동의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원동자연휴양림



원동의 자연이 선사하는 시원한 계곡물과 푸르른 숲을 맘껏 즐기고 싶다면 원동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토곡산과 선암산이 이루는 산맥 능선에 있는 이 자연휴양림은 피서와 함께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제격이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약을 통해 데크나 노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잘 정비된 숲길을 걸으며 나무에서 나온 피톤치드를 흡입하며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숙박 시설도 있으니, 휴가 계획을 잡고 있다면 원동자연휴양림도 휴가지 후보 리스트에 넣는 것을 권한다.



- 주소 양산시 원동면 늘밭로 64
- 문의 055-382-5839
- 주소 12:00~18:50



떡볶이당
/한우 /한돈 전문

떡
고추가루
왕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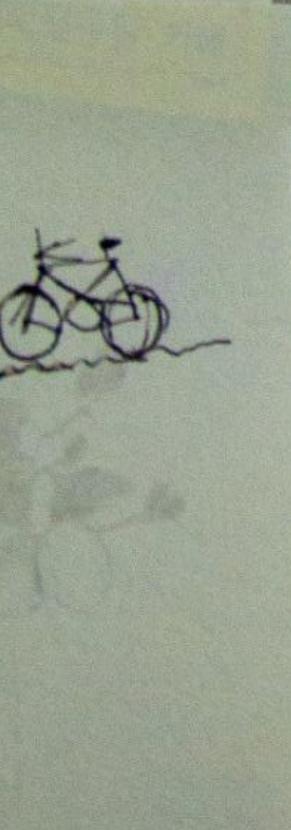
한우구이
노구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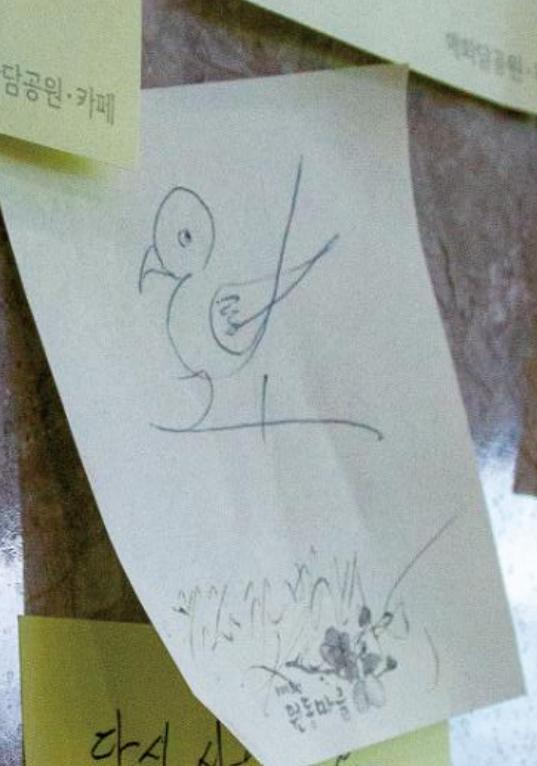
인생
2월
공원·카페



매화담공원·카페

에러 세
리 리
꽃구경하러 "원동"
다녀갑니다 😊
다음엔 우리셀 다같이♡
- 🍓 5 소녀 -
주말장터 매화담공원·카페

매화담공원·카페



당신 사랑하
영원히
우리들 영원히
정해. 정해. 영영

재민
이영
갈 차라서
코마치?
앞으로
리?

2021년 3월 11
친동 배라 마을에
서민녀 왔다 감추려
산 강취가 넘쳐는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아버지의
매화담공원·카페

원리路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원리路(로) 가게]

발 행 처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농촌활성화팀)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3-1, 3F

연 락 처 055-382-9196~7

팩 스 055-382-9198

이 메 일 ys_village@naver.com

홈 페이지 www.ysrc.or.kr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원리路 가게

원동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원리路(로) 가게]

